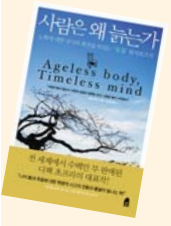


신간 도서

사람은 왜 늙는가



심신의학자 디팩 초프라가 인간의 노화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과학, 인도철학, 현대의학을 가로지르며 전방위적 탐구를 시도했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의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오감이 인식하는 3차원을 넘어 근원까지 내려가 보면 우리 몸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에너지와 정보로 이뤄진 하나의 빛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인체가 하나의 물질적 객체가 아닌 에너지 푸러미라...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 제국



현대 사회는 매 순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비잔틴제국의 사람들은 새로운 체계를 받아 들이면서도 어디까지 이념대로 갈 수 있을까, 어디쯤에서 현실과 타협해야 할까, 이념을 그대로 두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각 시기마다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1000년 동안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며 시대에 발맞춰 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비잔틴제국의 역사를 기존의 서양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각으로 비잔틴 역사학의 기본서로 재구성했다.

이노우에 고이치 지음 | 다룬세상 |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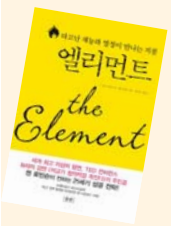
악화의 진실



1866년 대원군은 정쟁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경북공 중건사업을 벌이는 한편,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맞아 군비를 확장시킨다. 국가의 재정지출은 날로 확대되는 반면, 재정수입은 계속 축소되는 가운데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했으나 1~2년 사이 물가가 6배까지 폭등하는 등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악화의 진실>은 이처럼 당백전이 발행됐던 조선 말기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통해 대원군을 비롯한 집권 관료들이 어떤 생각으로 당백전을 발행했는지, 또 발행된 당백전이 어떻게 일반 백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묘사해 잘못된 화폐 정책이 어떻게 국가를 멸망케 하는지 보여준다.

박준수 지음 | 밀리언하우스 | 1만3000원

엘리먼트



지금처럼 창의성을 주목하는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드물다. 수많은 기업이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한 수많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안정적인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선호한다. 사회는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인 톰 로빈슨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타고난 소질과 개인의 열정이 만나는 지점, 즉 자신의 엘리먼트를 찾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켄 로빈슨 · 루 애로니카 지음 | 승영조 옮김 | 승산 | 1만4000원



타인과 더불어 살기 다양한 인생 보여주고파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선정 10월부터 장편소설 쓸 계획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느 개그프로그램에서 나온 유행어로, 언제부터인지 최고만 기억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말이다. 소설가 김우남씨는 얼마 전 세상의 최고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을법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굿바이 굿바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이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엮어 만든 이 책은 '막장드라마'가 준비하는 현 시대에 죽비 같은 소설이다. 김우남 작가는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을 조용히 응시하는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작문치료사, 치유상담사 등을 통해 그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특히 작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종교적 사유와 맞물려 글로 표현한다.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삶과 종교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김우남 작가를 만나 작품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작품인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에 이어 <굿바이, 굿바이>에서도 그러하듯, 인간의 삶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반목은, 결국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해 못할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처지와 그때의 상황을 들여보면 전혀 이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책을 통해 소외되고 상처받은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굿바이 굿바이>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사랑'과 '희망' 등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순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쓴 어느 자살자의 글이 생각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온기입니다.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가 쓴 <벽>이라는 단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영동하게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벽만 허물면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말입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구원의 글쓰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하다가 사이비교주로 오인될까 무섭습니다.(웃음) 남들이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상담치료를 받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들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가까운 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 자신은 "걸림 없이 잘 쓸 알라"라는 말을 늘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소설에는 유달리 종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불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다루지는데, 한 인간의 삶의 상처를 그려내는 과정을 종교와 연관 지어 풀어낸 의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대선안인 불교는 자연스럽게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 호도하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평정을 찾으려는 현대인에게 불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 소설 속 작품이 불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어느 종교에 빗대어도 가능한 삶의 문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굿바이 굿바이>를 출간하신 것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설집은 대중소설과 달리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대신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소설집이 우수도서로

선정되고 3쇄 이상 인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설집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 10월부터 3개월 동안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뽑히기 됐는데, 그곳에서 현재 준비 중인 장편소설을 쓸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기억을 스스로 단절시킨 '기억의 조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이한 행장으로 종단에서 소외된 한 스님의 일생을 통해 불교의 참의미를 되짚어 보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굿바이 굿바이 | 김우남 지음 | 문예출판사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est-selling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Advertisement for Nonghyeong 1st anniversary 7-year anniversary celebration, featuring refrigerators and fresh produce.

Advertisement for Ginseng products (민속죽염) with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Gyeonggyeong' (금강경 회상승해) by Gwanggyeong, a Buddhist sutra commentary.

Advertisement for Zen Master Jeeun's books, including 'Hwa-du' (화두) and 'Buljojeomae' (불조정맥).